

|                                   |    |                            |
|-----------------------------------|----|----------------------------|
| <b>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b> | 회차 | 8-3차 임시회의<br>(8차 정기회의 미진행) |
|                                   | 일자 | 2021.02.04. 12:00          |
|                                   | 장소 | ZOOM 화상회의                  |

|      |        |      |        |       |        |      |
|------|--------|------|--------|-------|--------|------|
| 간호대학 | 경영경제대학 | 사범대학 | 사회과학대학 | 약학대학  | 예술대학   | 의과대학 |
| X    | O      | X    | O      | X     | X      | O    |
| 인문대학 |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 동아리연합회 |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 계    |
| O    | O      | O    | O      | O     | O      | 9/13 |

총: 13단위 중 9단위 참석해주셨으므로 임시회의 진행하겠다. 우선 오늘 회의의 골자는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한 단운위별 의견 수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된다. 어제 회의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드리겠다. 우선 어제 중운위 공지방에 올려드린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어제 회의에서는 성적장학금 10% 감면없이 원상복구 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단과대 대표자분들께 양해의 말씀과 저희가 협의체에서 대표자들끼리 상호합의 완료된 상황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로, 대표자분들이 말씀해주신 학교의 적극적인 재정 마련과 추가가용예산 확보 요구를 하였고, 또한 명칭 사용과 관련되서도 학생사회에서는 등록금 환불 명칭을 사용하겠다 라는 말씀 드렸다. 등록금 환불의 문제는 단순 통계 수치로만 다가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시선에서 받아드리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한번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학교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등록금 환불 재원마련 추가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해주셨고 또한 학우분들이 해주신 강의평가의 결과를 보면 지난 1학기 보다는 2학기에 점수가 3.4점이 올랐다 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현재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성적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측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강의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이용 불가능 등 대학 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강의평가 점수로만은 등록금 환불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의 이유가 학생들의 잘못도 아니고 교강사 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성적을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학점 인플레이션이 성적장학금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비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우선, 만약에 등록금 재원의 추가 확보가 힘들다면 학교 측은 반드시 학우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응하는 자료가 있어야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학생 측의 일방적인 요구나 학교 측의 일방적인 설명으로써 등록금 환불의 과정이 진행 되서는 안되며 학교와 학생이 함께 재정부족의 차이를 함께 도출하고 이를 전체 학생사회나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게 전반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골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캠과 안성캠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저희 서울캠 중운위는 보편적 지급이 이뤄져야한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 안성캠 중운위는 선별적 지급이 이뤄져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해당 의견이 상충되어서 10분 동안 정회를 진행하였고 서울캠과 안성캠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학 사정등 여러 가지 학교 행정 업무를 고려해서 일단 성적장학금을 픽스를 하되 그 7.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그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다음 3차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하자 라고 귀결되었다. 그래서 3차 회의에서는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며 오늘 회의에서는 단운위별 의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혹시 어제 회의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지?

인문.정: 인문대학 궁금한 게 있다. 일단 어제 회의 하시느라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일단 성적장학금은 보존이 된 것인지?

총: 네 맞다.

인문.정: 그러면 지금 어제 학교 측에서 지금 세가지 안을 제시해준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하나가 성적장

학금 감면 없이 1~2%,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면 없이 4~5%, 3번이 비율을 이 상황에서 조정하는 안 이 세가지 안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총: 말씀하시던 중에 죄송한데 그건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표자분들께 옵션을 드린 것이다.

인문.정: 어찌됐던 간에 지금 저희가 학교 측에서 요구한 7.8억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3가지라는 것 아닌지?

총: 네 맞다.

인문.정: 그런데 일단은 지금 2번이랑 3번은 성적장학금 보존이 확정되었으니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이고 최악의 상황은 1번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인지? 그 상황에서 지금 지급방식 논의가 이뤄지는건지 궁금하다. 지금 7.8억을 저희가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가 약간 의문이다.

총: 일단 우선적으로 7.8억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고 학교의 재정 부족에 관한 자료를 요청을 하였다. 그 자료를 요청을 했고, 그 자료를 중운위 대표자분들이랑 검토를 하고 만약에 해당 자료가 빈약하거나 미비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 가용예산을 확보 해달라 라는 요구를 재요구 할 예정이며 그 의사를 학교 본부측에 전달하였다.

사과.정: 사과대 단운위 어제 취합된 거 아까 인문대 말씀의 연장선이여서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첫 번째로 단운위 의견수렴 없이 일단 진행한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두 번째로 가용예산이 왜 7.8억인지에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중앙대 적립금이 현재 10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중 임의기타 기금만 500억이라고 알고 있다. 1년 회계로 볼 때 수입 감소로 학교재정이 예년대비 어려울 순 있지만 학교 측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등록금 회계로 충당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우선 있고, 또한 수입 지출만으로는 학교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나아간 것이고 중앙대학교 자산구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자원 확보를 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이다. 그래서 중운위가 요청하는 어떠한 자료나 요청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학교의 재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재무상태표를 요구하고, 두 번째로는 재무상태표와 함께 가용예산이 7.8억뿐이 그러니까 추가 자원 확보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가용예산이 7.8억뿐이라면 이에 대해서 소명은 학교 측에서 책임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게 선별적 지급이랑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 단운위 차원에서 논의해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이 논의를 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지금 시점은 7.8억 이상의 자원 확보를 노력하는 게 맞고,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은 사실 그러니까 조삼모사의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명확한 지급관련 어떤 추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학생사회의 의견을 보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인문.정: 인문대학 얘기해도 괜찮은지? 회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실 거면 하셔도 괜찮다.

총: 네 일단 말씀해주신 의견 좋은 의견인 것 같고, 고려를 해서 3차 의견 들어가겠다.

인문.정: 인문대학 의견을 좀 얘기해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저희도 일단은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는 어제 인문대 운영위원회는 보편적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하는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아까 사과대 회장님이 말씀 해주셨던 것 처럼 7.8억 이라는 금액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커서 어제 인문대학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총: 네

인문.정: 인문대학 운영위원회 의견이기도 하고 지금 중앙운영위원회에 건의 드리는 내용이기도 해서 조금 살펴주셨으면 한다. 일단은 인문대학 운영위원회는 어제 제시한 3가지 안에 어떠한 안에도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학교로부터 재정부족의 합당한 이유를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운위가 열람했던 모든 자료를 일반 학우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는 어제 나온 내용이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재원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8억의 금액을 지금 학우분들에게 1~2%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인문대학의 경우는 최대 받는 금액이 그러면 3.4만원~6.8만원 이다. 이걸 과연 학우분들이 동의해주실지 저희는 사실 의문이고 학교가 재정부족의 이유를 설명은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설명되어도 코로나19 전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우분들이 100% 학교 사정을 이해해주실 것인지도 사실 의문이다. 또한 지금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진행하고 협의체도 진행하고 총학생회 측에서 여러 노력을 하시는 것 전부 인지를 하고 있다. 근데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반 다르게 없다고 저희는 파악을 했다. 지난번 62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체에서 재정확보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재정이 부족하다 라는 답변 뿐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모든 상황을 학우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교에서 이러한 요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학교본부와 등록금 환불에 대해 좀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어떨까를 좀 제안 드리고 싶다. 그 행동이라 함은 연서명이 될 수도 있겠고 릴레이가 될 수도 있겠고 뭐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고 대자보가 될 수도 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논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우분들께서 지난번 설문조사에서 지난학기 등록금환불보다 개선해야 할 점이 학생회의 보다 강력한 요구라는 설문에 60%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협의체를 간 것을 제외하고 뭘 더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7.8억이라는 금액을 재정확보 요청을 협의체에서 계속 요청을 해도 학교 측에서 이것에 대해 재정부족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이건 학생회가 학교 본부에 있어서 을의 입장이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 왜 계속해서 우리 학교가 주는 금액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인문대학 의견이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중앙운영위원회가 7.8억 이상의 금액을 받아내는 데에 있어서 협의체는 사실 더 이상은 좀 공신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계속 계속 똑같다. 좀 더 외부로 학우분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투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가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선명적으로 나선다면 어떤 학우분께서 공감해주지 않으실지, 다 공감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거는 진심으로 중앙대학교 학생사회랑 중앙운영위원회가 걱정되어서 저희 인문대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모아진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렸다. 혹시 제 워딩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총: 네 일단 감사하다. 다른 단과대 대표자분들 의견 있으신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8억을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우선 관련 자료를 요청을 했고 관련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실하다 라고 판명이 되면 추가자료와 7.8억에서 더 많은 재원을 마련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었다. 그 부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다.

인문.정: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체에서 추가재원 확보를 요구 하는 것은 좋은데 어제 요청을 드렸을 때 학교본부에서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 라는 일관된 답변을 계속해서 저는 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계속해서 협의체에서 뭔가를 더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럴 때는 차라리 학우분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 어떨까싶다. 학우분들이 대다수가 공감을 해주신다면 학교본부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다.

사과.정: 사과대 저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는 7.8억이라는 규모로 등록금 환불이 진행됐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거에 후에 오는 어떤 풍파와 비난을 63대 중앙운영위원회가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지에 대한 걱정이다. 그니까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로만 봤을 때 작년 62대 중운위에서 진행됐던 등록

금 환불보다 어쨌든 적은 금액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중운위 차원에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미 학우들의 기대감을 뭔가 할 것 같다는 학우들의 기대감을 높혀 둔 상태에서 7.8억 규모의 등록금 환불 그러니까 저번 학기에는 38억 규모의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7.8억을 어떻게든 쪼개서 등록금 환불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학생사회에 어떤 비난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 저희가 감당할 것인지 이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걱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는 7.8억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금 인문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7.8억 이상의 금액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학교는 재정 상태에서 7.8억의 규모밖에 확보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저희도 필요한 자료는 요청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떤 회계내역 뭐 학교의 가용예산에 대해서 분석을 하되 이것과 별개로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어제 제가 단운위 차원에서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은 중운위가 물론 저희가 단과대 대표자이고 저희 중운위가 최고 의결기구인것도 알고 있고 중운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외적인 효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다만 저는 단운위에서 논의를 하는 단계가 학생사회의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뭐 7.8억이라던지 아니면 성적장학금 감면 미감면, 그리고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단운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만 학과/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추후에 어떤 동의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나중에 중운위가 맞게 될 풍파가 걱정이 되어 말씀드린다.

인문.정: 아까 사과대 회장님의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협의체에서 나가서 그 금액을 받아오는 것과 뭐라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 때 비난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혹시 오늘 회의 안건지는 없는지? 다른 소리해서 죄송하다.

총: 안건지라함은 그냥 어제 있었던 2차 회의 브리핑,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지급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해서 안건지를 부득이하게 만들지 못했다. 안건이 너무 명확해서

인문.정: 회의록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총: 회의록 작성해서 올려드리겠다. 네 오늘은 그냥 단운위별 의견 편안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고, 임시 회의이다 보니 다른 단과대 대표자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해서 모든 단운위 의견 수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의견 개진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경경.부: 경경대 의견 드려도 괜찮은지?

총: 네

경경.부: 제가 지금까지 듣고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7.8억 이상의 추가 재정마련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또 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학교 재정 부족 관련 자료를 부탁해주셨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추가재정 마련이 가능할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후에 만약 추가 재정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더 가용 예산을 늘려 달라 라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하지만 관련 자료를 다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학우분들께 어떻게 더 잘 설명을 해 드릴지 이런 걸 좀 고민해보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부총: 일단 다른 대표자들께서 이 협의 과정이나 협의 이후에 저희 중운위의 처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번에 등록금 환불 협의체 정식 회의라든지 중운위 논의가 급하게 진행이 되어서 행정부처 간담회 이후로 관련 보고를 총학생회 차원에서 계속 학우분들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당 창구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일단 미봉책으로. 그래서 그것은 이번 주 내로 정보 보고 그동안 미완됐던 것을 다 올리도록 하고 일단 저희도 계속 거듭 말씀

드리다시피 7.8억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재정상황을 지금 요구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중운위 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나 요구를 더 진행을 해서 저희 입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과.부: 사과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방금 총학생회장님께서 등록금 환불 2차 협의체에서 추가적인 재정 마련이 가능한지 자료들 요청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는지 알 수 있는지? 단순히 자료들만 요청해달라고 했을 때 학교 측에서 당연히 가용예산이 부족하다는 그걸 전제로 자료를 주실 텐데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총: 우선적으로 아직 공문은 발행하지 않았고, 첫 번째로 7.8억이 어디에서 왔냐 1.8억은 노조에서 기부 해주신 것이고 그 6억에 대해서 출처를 밝혀 달라 라는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가결산안과 2021년 봄 예산안을 비교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과 2월 말을 기점으로 이월되는 금액이라던지 학우분 들께 드리는 등록금 환불의 재원으로 가용한 자원 항목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답변이 되셨는지?

부총: 어제 회의에서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는 입장을 먼저 학생 측이 밝혀놓은 상황이다.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이 나온 대로 공문형식이나, 학교 측에 다시 송부하겠다.

사과.부: 네 감사하다.

총: 통일공대나 의대 동아리연합회, 자연대도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다.

통공.정: 우선 공대는 단운위 구성원들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 회의가 오늘 저녁 중으로 잡혀있다. 그래서 아직 말씀해주신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에 대한 의견수렴은 진행되지 않았고 저녁에 회의를 진행한 후에 카톡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려고 계획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사과대 학생회장님과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아직 혼자 계속 생각중이라서 그에 대한 의견은 아직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다.

총: 알겠다. 우선적으로 차기 단운위 회의에서는 지급 방식과 더불어서 학교에 요청할 자료들을 함께 정리해서 차기 중운위 회의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아직 동아리연합회나 의대나 자연대 아직 의견을 말씀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의견 요청 드리도록 하겠다.

의과.정: 저희 의과대학도 어제 교수진과 회의가 있어서 단운위 차원의 의논은 아직 하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다면 저는 어제 회의를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저는 그냥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다른 대표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가 왜 7.8억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다른 학우분들께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 납득해주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고 학우분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우분들께 먼저 정보 공유가 되어 한다고 생각한다.

총: 의견 감사하다.

사과.비: 이어서 자연대 의견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약식으로 단운위 진행해 본 결과 가계 곤란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정등은 이미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비용은 비대면 학사로 인한 등록금 환불 명목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는 보편적 지급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인문대 회장님과 사과대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7.8억 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한다면 더더욱 7.8억보다는 좀 더 가용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학교 측에 그걸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저희도 또한 전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공유를 해야 학생들이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동연.정: 동아리연합회는 현재 단운위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덜 된 상황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에 따르면 학우분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학교 측 재원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므로 우선 정보 수집이 먼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촉박하다고 생각되기에 추가로 더 회의를 진행을 해서 좀 신속히 움직이는 게 나을 듯 싶다.

총: 네 감사하다. 네 지금 참석해주신 모든 단과대 대표자분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것 같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결정짓자는 것이 아니라 단운위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합하고자 임시회의를 소집을 하였고 차기 회의 이제 중운위 회의에서는 지금 방식에 더불어서 7.8억에 대한 자료 그리고 다른 추가 가용 예산에 대한 항목들의 자료의 요청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단운위 회의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에 제가 이번 중운위 회의 끝나고 게시글을 하나 만들어드리겠다. 대표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에 공문 형식으로 발행하겠다. 괜찮으신지?

인문.정: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말해도 되는지?

총: 네

인문.정: 총학생회장님이 지금까지 주신 의견 말씀 해주신 것 모두 동의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다. 일단 단운위 의견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편적 지급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보편적 지급이라고 결정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한 이유가 지금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교육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생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학교 측에 분명하게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안성캠에도 좀 전달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부총학생회장님의 말씀을 보서는 정보공개를 해주시겠다, 우리가 협의체에서 이러한 내용이 오갔고 학교 측에서 이러한 금액을 내걸고 이 금액으로 봤을 때 학우분들께 실 납부액에서 돌아가는 금액은 이거다 라는 것을 공개해주시겠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부총: 실제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것을 밝힐 것인지는 저희도 내용을 논의해봐야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의 입장과 학생 측의 입장이 맞지 않다 라는 부분 등의 사정은 학생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근데 저는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반드시 액수와 퍼센테이지에 대한 설명이 학우분들께 있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저희가 정보공개를 해서 총학생회나 중앙운영위원회가 정보공개를 하면 학생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학내 언론, 에브리타임이라던지 중대신문이라던지 여러 sns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모아질텐데 그 이후에도 협의체에 들어가서 재정 확보를 요구했을 때 학교 측에서 똑같은 답변을 했을 때 그때 총학생회장님과 부총학생회장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운영위원회가 조금 더 강력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게 제 제안이었다. 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두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어도 좋으니까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총: 뭐 어떠한 제가 학우 분들의 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의견에 따라서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소신을 다할 것이고 총학생회장으로서의 행동을 할 예정이다. 확답은 못 드리겠다.

인문.정: 네 감사하다. 그리고 계절 학기는 아예 쏙 들어간 것인지?

총: 계절학기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계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 분에 관해서도 지금 2학기 환불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인문.정: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총: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다.

사과.정: 우선은 저희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에 오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설물을 사용해서 드는 비용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학습권 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기숙사라든지 학식비라든지 단기 교육과정으로 인한 수익 감소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고 어쨌든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한 푼도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등록금 환불이 지금 비율보다는 확대돼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고 아까 전에 논의를 할 때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자료분석을 하고 학교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학교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학생회 차원의 행동을 하는 프로세스가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되면 그 학생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학교 측이 돈이 없다는걸 그냥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7.8억 선에서만 하겠다는 결론이 얼마큼 긍정적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등록금 환불이 더 단계가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 정보를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과 별개로 이제 연서명이라든지 성명서라든지 별도의 행동 또한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의견 감사하다. 오늘 회의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네 없으신 걸로 하고 사과대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단운위별 의견수합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3차 회의 일정을 빠르게 픽스하여 중운위 임시회의 소집하도록 하겠다. 중운위 임시회의를 소집을 할 때는 단운위 의견 수합 시간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다. 괜찮으신지? 추가 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중운위 8-3차 회의 마치도록 하겠다. 모두 고생 많으셨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